

# 김은희·김은숙·노희경 '안방극장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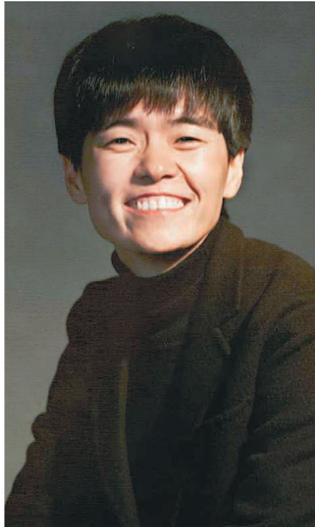
'지리산' 마친 김은희 차기작 '악귀' 트레이드마크 스텔러, 캐스팅 돌입 로맨스물의 귀재 김은숙 깜짝 변신 송혜교와 복수극 '더 글로리' 준비 '라이브' 만든 노희경 "새로운 시도" 톱스타들 참여 '우리들의...' 집필

안방극장을 쥐락펴락하는 '스타작가'들이 돌아온다.

김은숙, 노희경, 김은희... 이름 석 자 만으로도 톱스타 못지않은 파급력을 자랑하는 드라마 작가들이 올해 저마다 새 작품을 내놓는다. 이들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줄 선 톱스타들도 자연스럽게 안방극장으로 모여든다. 제작진은 스타 작가들의 복귀에 이전 작품들을 '다시보기' 서비스 하는 등 시청률 예열하는 등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안방극장의 '스타작가'로 통하는 김은희, 김은숙, 노희경 작가(왼쪽부터)가 올해 일제히 새 드라마를 내놓기로 해 시청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동아 DB·사진제공 | 넷플릭스·한국콘텐츠진흥원



### ●개성 강화 혹은 신선한 도전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 등을 만든 김은희 작가는 트레이드마크인 스텔러 장르로 돌아온다. 연말 SBS에서 방영할 '악귀'(가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tvN '지리산'을 마지막마자 곧바로 캐스팅 작업에 돌입했다. 귀신을 볼 줄 아는 두 남자가 사람들을 해치는 악귀를 찾아다니는 내용이다. 김태리 등 톱스타들이 주연 자리를 제안 받고 논의 중이다.

KBS 2TV '태양의 후예', tvN '도깨비' 등으로 이름을 알린 김은숙 작가는

변신을 택했다. 배우 송혜교와 손잡고 8부작 '더 글로리'를 내놓는다. 그동안 주력해온 절절한 로맨스와 사뭇 다른 복수 소재 드라마다. 학창시절에 당한 학교폭력을 복수하기 위해 가해자들 앞에 선생님이 되어 나타나는 주인공의 이야기다. 1월부터 사전 촬영해 하반기에 넷플릭스로 공개할 계획이다.

### ●새 한류 농칠라, 제작사 '준비 분주'

노희경,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는 상반기에 작품을 선보인다. tvN '디어 마이 프렌즈' '라이브' 등을 만든

노희경 작가는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김우빈 등 톱스타들이 줄줄이 참여하는 '우리들의 블루스'를 집필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촬영해 4월 tvN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는 노희경 작가의 뜻에 따라 유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홍자매 표 판타지 세계도 다시 열린다. SBS '주군의 태양', tvN '호텔델루나' 등 판타지 소재로 인기를 끈 홍자매 작가는 마술을 부리는 젊은 '술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환혼'을 6월 선보인다. 이외에도 tvN '사랑의 불시착' 박지은

작가가 최근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 기획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스타작가들이 한꺼번에 안방극장으로 몰리기는 이례적이다. 이에 방송사뿐 아니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까지 이들의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각 제작사와 방송사들이 지난해부터 세계에서 'K(케이) 콘텐츠'가 유행하는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을 발 빠르게 제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놀면 뭐하니?' 방송 수익금 17억여원 기부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지난해 방송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 17억여원을 기부한다. MBC는 2일 "'놀면 뭐하니?'의 제작진이 유재석 등 출연자들과 뜻을 모아 2021년 달력(사진) 판매금,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의 음원과 앨범 판매 수익 등 총 17억 1000만원을 11개 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신유빈 탁구 국가대표는 미션으로 획득한 1000만원과 출연료 전액을 더해 2000만원을 대한탁구협회에 기부했다. 나머지 16억9000만원은 안나의집, 한국소아암재단, 사랑의열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SM타운 '온라인 콘서트' 5100만 스트리밍



새해 첫날 열린 SM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콘서트(사진)를 전 세계 161개 지역 팬들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열린 'SM타운 2022:SMCU 익스프레스'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인 '비온드 라이브' 기준으로 세계 161개 지역에서 약 5100만 스트리밍 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같은 공연의 스트리밍 수(3583만회)의 1.4배에 달한다. 이번 공연은 가상의 공간 '광야'에 강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등 소속 가수들이 모두 모이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인민트에 따르면 전날 열린 'SM타운 2022:SMCU 익스프레스'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 플랫폼인 '비온드 라이브' 기준으로 세계 161개 지역에서 약 5100만 스트리밍 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열린 같은 공연의 스트리밍 수(3583만회)의 1.4배에 달한다. 이번 공연은 가상의 공간 '광야'에 강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등 소속 가수들이 모두 모이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 '스파이더맨' 누적관객 600만명 돌파

영화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감독 존 왓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흥행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2일 배급사 소니픽처스코리아는 SNS를 통해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이 누적관객 6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5일 개봉한 영화는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이후 1일까지 18일째 정상을 지키고 있다. 세계적인 흥행도 이어가고 있다. 2일(한국시간) 미국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영화는 지난 달 31일까지 세계에서 12억1754만여달러(약 1조4494억 원)를 벌여 들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 호랑이띠 스타들 "2022년은 우리의 범이 내려온다"

최민식, '행복의 나라' 등 개봉 예정 유아인, 스크린·안방 활동 보폭 넓혀 보아·유노윤호·송가인도 활약 예고



최민식 유아인 펼쳐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1962년생 최민식을 시작으로

로 유아인, 변요한, 류준열, 김선호 등 1986년 동갑내기들의 화려한 활동이 예고되어 있다. 최민식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인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 또 신분을 숨긴 채 자살자 경비원으로 살아가는 탈북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감독 박동훈)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유아인은 영화 '하이파

이브', '승부', 넷플릭스 '서울대작전' 등까지 한층 더 보폭을 넓힌다.

변요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개봉한 '보이스', '자산여보'에 이어 '한산: 용의 출현'의 개봉해 대중과 만난다.

지난해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세자매'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문소리도 1974년생 범피스타다. 그는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퀸메이커'와 영화 '서울대작전'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요계에서는 유독 범피스타가 많다. 아시아의 별 보아와 동방신기의 유노윤호, 슈퍼주니어의 은혁과 동해, 성민, 그리고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1986년생 동갑내기들이다. 이정민 기자 annjoy@donga.com

##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